TRANS-HUMANITIES

Title : 중다한 잡족' 이스라엘의 사회적 상상력과 그 21세기적 함의
A Societal Imagination of "Mixed Tribe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21st-Century Global Immigrants

Author(s) : 백소영 (Baik Soyoung)

Source : *Trans-Humanities*, Vol. 4 No. 2 (2011), pp. 73–99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EIH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탈경계 인문학』 제4권 2호
(2011. 6): 73-99

‘중다한 잡족’ 이스라엘의 사회적 상상력과 그 21세기적 함의*

백소영

1. 들어가는 말

큰 민족도 아니요 역사에서 강한 국가로 군림했던 집단도 아니건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서양사를 통해 꾸준히 주목 받아왔다. 세계 각국의 알짜배기 부호들은 대부분 유태인이요 근대사 이래 혁혁한 학문적·이론적 공헌을 이룬 학자들 가운데 유태인 출신이 많다는 이유로부터, 인류 역사의 아픈 기억인 홀로코스트, 그리고 20세기 민족국가의 출범이래 지속되어온 팔레스타인과의 분쟁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주범이라는 이유에서, 또한 전지구적 세력을 자랑하는 거대한 세계종교들의 발생지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은 여전이 세계적 관심의 중심에 있다. 사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으로 무장한 이 배타적이고 옹고집스런 이름

백소영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L0015).

www.kci.go.kr

은 이제 더 이상 핍박받는 집단의 상징이 아니라, 지배자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오죽하면 최근 한 학자는 서양문화에서 유대인은 이미 상징적인 의미에서 '백인성'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을까.[1)]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소수민족' 혹은 '사회적 약자'의 위치가 아닌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21세기 전지구적으로 늘어나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구성의 변화를 접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떠올려 보기로 했다. 고국으로부터 떠나온 까닭에 고국의 법적·정서적 보호로부터도 멀고, 또한 이방인이기에 거주지의 법적 보호나 사회적 인정으로부터 빗겨나 있는 21세기 국제이주노동자들의 현실에서 문득 이스라엘의 처음이 겹쳐보였기 때문이다. 당시의 제한된 지식과 지리적 배경으로서는 '전 세계'에 해당했을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 전 지역을 두루 떠돌아 방랑하면서 주변 도시국가들의 틈새를 살아갔던 사람들. 그러다 기회가 허락되면 도시국가 체제 속에서 계약노예로, 계약노동자로, 계약용병으로 하루의 생명을 이어갔다던 사람들. 그래서 오죽했으면 성서에조차 "중다한 잡족"(「출애굽기」 12: 38)이요 "유리방랑하는 아람인들"(「신명기」 26:5)이었다고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초기경험으로부터 오늘날 강대국의 변두리 혹은 틈새를 살아가는 국제적 이주 노동자들의 연대와 공동체성을 풀어갈 수 있는 사회적 상상력을 얻어 볼 가능성은 없을까? 생존형 이주노동자들, 사회의 루저들이 연대하여 나름 자립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초기사를 통해, 고향을 떠난 상황의 보편성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21세기적 '글로벌 잡족'과 '방랑하는 이주자들'을 묶는 힘의 근거를 모색할 방도는 없을까? 수천 년 동안의 민족사적 고난에도 불구하고 혼종적 집단의 연

1) 탈경계인문학연구단의 해외석학 초청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미시간대 역사학과 Kevin Gaines 교수가 2010년 6월 16일자 구두강연 "The Race is On: Muslims and Arabs in the American Imagination"에서 언급한 말이다.

www.kci.go.kr

대를 가능케 했던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 물론 그 힘의 고착화와 현재의 배타적 사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서 별도의 평가를 하려한다. 그러나 수천 년 전에 "중다한 잡족"을 하나로 연대시킨 그들의 사회적, 종교적 상상력은 여전히 필자의 관심 대상이다.

물론 이스라엘 초기사를 복원해내는 작업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는 고고학자, 성서신학자, 역사학자들 사이에 이스라엘의 선조들에 대한 일치되고 확연한 주장을 찾기란 어렵다. 19세기 역사비평적 성서학이 태동한 이래 지금까지 이념형처럼 자리를 잡은 가설은 크게 셋이다. 그 첫째는 「여호수아서」에 묘사된 대로 이집트를 탈출한 일단의 노예집단이 야훼의 인도 하에 전쟁을 치러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했다는 "가나안 정복설"이다.[2] 둘째로 제시된 가설은 "평화적 정착설"이다. 알트(Albrecht Alt)가 처음 제기한 가설이라 알트학파라고도 부른다. 이스라엘인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평화적으로 가나안의 중앙산간지역에 침입해 들어갔다"는 주장이다.[3] 세 번째 가설은 "농민봉기설" 혹은 "사회변혁 모델"이다. 멘덴홀(George Mendenhall)이 제안하고 갓월드(Norman Gottwald)[4]가 발전시킨 가설인데, 가나안 사회에서 발전

---

2) 이 가설의 대가는 올브라이트(William Foxwell Albright)인데, 이후 활발해진 고고학적 탐사가 "이스라엘인들이 행한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기원전 1200년경의 파괴의 흔적이 어디에도 없다"(데버 57)든지 "정복설을 지지할만한 성서상의 에피소드인 여리고나 아이 같은 지역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다고 주장하는 시대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섕크스 17)을 밝혀내면서 이 가설은 점차 지지를 잃어갔다.

3) 후기 청동기 시대(기원전 1550-1200)에는 가나안 중앙산간지역에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적 정착이 가능했다. 철기 1기(기원전 1200-1000)에 200개 이상의 새로운 거주지가 급격하게 생겨났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발견물들은 평화적 침입설을 지지한다(섕크스 17). 물론 이스라엘이 점차 성장해가면서 보다 비옥한 가나안에 침투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가나안 사람들과 충돌을 일으켰을 터이나, "이는 후의 일이고, 초기의 가나안 정착은 평화롭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18).

4) 최근에 맨덴홀은 갓월드에게 상당히 비판적이다. 갓월드는 '농민봉기설'이나 '평등사회' 같은 단어들 대신에 "농경 사회혁명"과 "공동생산양식"이라는 용어로 바꿨는데(데버 103) 자신과 같은 초기 이스라엘 사회사와 관련하여 쿠트(Robert B. Coote),

www.kci.go.kr

해나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형성한 주된 집단이라 주장한다.[5]

그러나 최근에는 세 가설의 대립적 택일보다는 통합을 향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세 가설이 "중다한 잡족" 이스라엘의 오랜 정착과정 중 일부만을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면 사실 병립불가능한 가설들도 아니다. 더구나 이 논문에서 시도하는 것이 성서에서 고백되는바 "유리방황하던 아람인"이요 "중다한 잡족"이었던 그들이 뿌리 들린 삶을 극복하고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적어도 연대 의식)를 이룰 수 있었던 힘을 살펴보는 것일진대, 하나의 가설만 붙잡고 논쟁적이 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성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어떠한 고백 속에서 자신들의 기원을 기록하고 기억하며 연대하고 있는가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후자유주의적 접근방식(a postliberal approach)"[6]의 성서학자 부르그만(Walter Brueggemann)의 말에 동의하면서, 필자는 성서의 목소리와 학자들의 이론들을 함께 숙고하는 가운데 사회윤리학자로서의 관심을 유지하려 한다. 물론 21세기적 자리에서, 그리고 세계화시대 국제이주노동자의 현실

화이트램(Keith Whitelam), 플래네이건(James W. Flanagan), 렘케(Neils P. Lemche), 스티빙(William H. Stiebing)을 참조하라고 조언한다(「데버교수의 비판에 대한 응답」 104).

5) "초기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에서 기원한 토착민들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은 그간 발견된 고고학적 증거들과 맞아 떨어진다(데버 54). 이 범주 안에 묶을 수 있는 주장으로 독일 학자 프릿츠(Volkmar Fritz)의 '공생모델'(symbiosis model)이 있는데, "원이스라엘인들"(proto-Israelites) 또는 "초기이스라엘인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오랜 기간 가나안인들과 함께 살아왔다는 주장이다. 가나안적 기원을 가지는 사람들이 후기 청동기의 가나안 도시사회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크게 지지를 하고 있다.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중앙산간지역에 기원전 12-11세기로부터 자연출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인구증가가 있었다 한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인들의 산간지대로의 이주를 보여주는 거주지들이 300여 군데 발견되었다. 이스라엘의 핑켈슈타인은 최근 에브라임 지파 지역 115개 거주지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를 근거로 팔레스타인 서부에서 동편으로 이주가 시작되었다고 보고하였다(82).

6) 성서본문을 글자그대로의 역사적 실재로 여기는 근본주의적 시도가 아니면서(non-fundamentalist) 동시에 합리성에 주목하는 자유주의적 관심 역시 넘어서는 접근을 말한다. 성서본문 자체가 담고 있는 신학적 전망들과 주장들을 설명하려는 입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부르그만 154-155).

www.kci.go.kr

을 고민하면서 과거를 읽어내는 것의 위험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어쩌면 현재의 열망이나 필요성이 과거를 읽어내는데 커다란 편견과 왜곡된 시선을 부여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삼중겹의 현실, 즉 이스라엘 선조들의 역사경험, 후대에 이를 신학적으로 정리한 성서기자들의 삶의 자리, 그리고 지금 이를 다시 읽으려하는 필자의 21세기적 위치가 서로 만나고 대화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대간, 공간간의 '탈경계적' 실험이라고 감히 주장해본다. 연구동료인 김연수가 잘 정리하였듯이 "탈경계 인문학"이 주요하게 주목하는 현상은 "인간·자본·노동 등의 이동과 움직임이 증대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탈경계적 현상과 유동적 현실" 그리고 "새로이 형성되는 경계 밖의 소수자, 주변인의 (포함된) 배제 상황"(김연수 55)이다. '민족' 주체나 '인종' 주체를 형성하는 공동의 경험이 희박해지는 현금의 지구적 변동 속에 사회적 계층이나 공간적 경험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새롭게 주체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집단이 있다면 이는 이주노동자들이 아닐까 한다. 김용규의 지적마따나 "주체는 변화하는 사회구성체 속에서 변화하는 주체 위치에 따라 끊임없는 접합과 탈접합의 과정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라 할 때(166) 21세기 새로운 사회구성체로 등장한 국제이주노동자의 현실에 관심하면서, 먼 옛날 "중다한 잡족" 이스라엘을 형성한 연대의 힘을 숙고해보는 것은 시의적으로도, 탈경계인문학적 관심에서도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2. '아피루' 혹은 '에베르'? 이스라엘 조상에 대한 흔적 찾기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이름 중 '히브리'(이브리 Ivrí)라는 표현이 있다. 사실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을 '베네 이스라엘(Benê Yisra'el, 이스라엘인들)'이라 부르지 히브리인이라 부르지 않는다. 히브리인이라는

www.kci.go.kr

이름은 구약성서 중에서 초기 설화에만 등장한다.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자신을 구별하는 경우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을 낮추어 부를 때 주로 사용되었는데(「창세기」 39: 14, 40: 15; 「출애굽기」 2: 6, 3: 18, 5: 3; 「사무엘상」 4: 6, 9) 그나마 왕국시대와 그 이후의 텍스트에는 사용되지 않았다(브라이트 126).

이 '히브리인'과 관련하여 그 기원을 찾는 한 시도는 '하비루' 혹은 '아피루'라는 사회적 계층집단과의 연관성이다. 최근 학자들은 히브리와 아피루 사이에 어원학적 연관성은 희박하나 적어도 초기 이스라엘을 구성한 사람들 중에서 아피루와 연관된 삶을 살던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을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초기 전승과 비슷한 시기인 기원전 20세기에서 13세기에 이르는 고대 근동의 다른 문헌들(기원전 19세기 갑바도기아 문서, 18세기 마리, 알라리코 문서, 기원전 15세기 누지 문서, 14세기 보가즈리이 문서, 라스 샴라 문서, 그리고 15-12세기에 걸친 이집트 제국시대의 문서들)에서 Apiru(Hapiru 혹은 Habiru)로 알려진 무리들에 대한 기록이 상당히 발견되었다(브라이트 126-127). 그 문서들에는 '농민, 노예, 백성, 국민, 시민이 아피루와 연합하거나 아피루가 되며' '아피루에게 도망간다.'는 표현들이 등장하며(체이니 94), 팔레스타인 도시국가의 소군주들이 상당히 이들을 두려워했음이 기록에 남아있다.[7)]

성서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피루'가 "일단의 종족이 아니라 사회의 한 계층을 가르쳤던 것 같고" "기존사회체제 속에서 기반

7) "너희들이 지도자를 죽이면, 너희도 우리처럼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그의 말에 따라 행동하였는데, 마치 아피루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암미아성읍처럼 아피루와 연합하였다." "이제 아피루는 폐하의 성읍을 취하였습니다." "아피루가된 노예들과 종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폐하께서는 아피루의 손에서 그의 땅을 건지소서." "폐하의 모든 땅이 아피루에게 넘겨졌음을 아옵소서." "아피루와 연합하고 협정을 맺고" "아피루가 되고" "아피루가 그 성읍을 점령할 것입니다." "그의 지원군이 강합니까? 아피루의 도움 때문에 강할 뿐입니다"(체이니 79-89).

www.kci.go.kr

없이 소외되어 살던 시민권 없는 계층"을 의미하는 이름이라는 것이다. "유목민처럼 때로는 평화롭게 때로는 약탈을 하면서 살다가 기회가 되면 성읍에 정착하기도" 하고 "용병으로 지원하거나 단위 부대를 이루기도, 궁핍한 경우 식객으로, 혹은 노예로, 이집트 왕실의 여러 사업에 징용되기도 하고, 가끔 요셉처럼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했던" 무리의 이름이 '아피루'이다. 히브리 선조들을 이 아피루와 동일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이 이러한 계층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브라이트 127)는 입장의 성서학자들이 많다. 특히 체이니(Marvin Chaney)는 아굴람 굴에 도망간 다윗의 예를 기록한 성서본문이 아피루 집단의 특성과 상당히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사무엘상 22장에 묘사된바 다윗에게로 피한 약한 자, 도망자들이 연대하여 이룬 집단이 당시 고대 문서들이 증거하고 있는 아피루와 사회적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다.[8] 부자들에게 강제적 탈취를 하기도 하고 유다의 적을 약탈하는 등 다윗집단의 활동은 용병활동으로서 전형적으로 아피루의 행동이라는 것이다(95).

한편, 보테로(Jean Bottero)나 로레츠(Oswald Loretz) 등 아피루와 히브리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주장들도 있다. 로레츠는 민족을 지칭하는 '히브리'라는 말이 바빌론 포로생활 이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신학자 집단에 의해서 창조된 후대의 용어라고 말한다(크라우스 309-310). 맥카터(P. Kyle McCarter)는 성서전승에서 발견되는 '히브리'는 항상 민족을 지칭하는 용어였다고 분석하면서,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 민족적으로 가나안인들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이 단어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즉 자신들은 팔레스타인인들과 달리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강 '건너편'에서 왔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있다는 것이다. 'trans'

8) "다윗은 그곳을 떠나 아둘람의 굴로 피해갔다. 그의 형들과 그의 온 집안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 그리로 내려갔다. 또한 억눌려 지내는 사람, 빚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 그 밖의 불평을 품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수는 약 400명가량이나 되었다"(「사무엘상」 22:1-2).

www.kci.go.kr

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에베르'로 표현할 수 있는데, 때문에 '히브리'가 '에베르'(건너서, 가로질러)에서 왔다고 풀고 있다. 즉, 이스라엘인들은 이곳 출신이 아닌, '저쪽 건너편'에서 왔다는 의미라는 주장이다(201).

성경의 족보에서 '에베르'(「창세기」 10: 24)라는 시조의 후손들로 묘사된 사람들의 거주지역이 예멘에서 중앙 시리아, 그리고 유프라테스까지 포함되는 넓은 지역의 기원을 지닌다면, 이 이름을 히브리의 기원으로 보더라도 이스라엘을 단일 혈연집단을 중심으로 한 민족 공동체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결국 '히브리'의 어원이 '아피루'에 있든 '에베르'에 있든 고대 근동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었고 떠돌던 일단의 무리들에서 이스라엘의 기원의 공통성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피루도 에베르도 자신들의 고향을 떠나 익숙하고 보호받는 공간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이주민들이요(거나) 사회적 약자들을 일컫는 이름이었다.

결국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하나는 이들이 '아피루'이든 '에베르'이든 근거지를 잃고 떠나온 사람들로서 계층적 억압과 불이익을 체험했던 잡다한 사람들의 총합이라는 것이 아닐까? 더구나 '히브리'라는 표현이 왕국시대 이후의 문헌에서는 사라진 반면 구두전승으로 대중사이에 두루 전달되었던 보다 오래된 이야기들 속에서는 살아남은 표현이라면 신빙성은 더욱 짙어진다. 왕국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원을 웅장하고 멋들어지게 묘사하고 싶은 법이니 후대로 갈수록 "중다한 잡족"이나 "유리방황하는 아람인"을 떠올릴 단어의 흔적들을 없애고 싶을 일이다. 결국 가설과 해설이라는 것이 "아주 가시적인 혹은 숨겨져 있는 어떤 기득권에 대한 옹호자들"(부르그만 116)임을 인정한다면 그것이 '아피루'냐 '에베르'냐의 양자택일적 논쟁을 넘어 이스라엘 초기전승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의 표현으로 사용된 '히브리'라는 단어가 가리키는 바의 의미를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초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아피루요(이거나) 에베르였기에 '히브리'는 여전히 이들 공동체의 이름으로 대표성을 가진다고 말이다.

www.kci.go.kr

3. “중다한 잡족”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연대

기원전 13세기 메르넵타 왕의 승전 비문에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리비아는 폐허가 되었고 하티는 평정되었다. 가나안은 온갖 재난으로 약탈당하였다. 아스칼론은 정복되었고 게제르는 점령당했으며 야노암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황폐해졌고, 그의 자손은 더 이상 없다. 시리아는 이집트 때문에 과부가 되었다”(크라우스 349). 크라우스(Rolf Krauss)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영토를 지닌 국가명이 아니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340)의 이름이라는 데 주목한다. 당시 가나안의 도시국가들의 이름들과 나란히 기록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장소가 아닌, 사람들임을 가리키는 한정사가 붙어 있다. 즉, 메르넵타 비문은 기원전 13세기 전반부에 이미 “이스라엘은 비록 고유의 영토를 지닌 것은 아니었으나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었으며, 수적으로도 눈에 띌 정도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세 도시 국가와는 별도로 언급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367).

이들은 언제부터 가나안 지역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어떻게 주변 국가들이 언급할 만큼의 세력을 키우게 되었을까? 성서는 이스라엘의 기원을 한 가족사로 그려내고 있다. 메소포타미아의 도시국가중 하나였던 우르(Ur) 지역을 떠나 하란을 거쳐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 이들의 조상으로서, 이후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가족계보를 통해 이스라엘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다가 성공하여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후 온 가족이 이집트로 이주하였고 불과 네 세대 만에 장정수가 60만인 대집단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하여 약속의 땅인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였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 이야기를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서학자는 근본주의자를 제외하고는 없다. 브라이트(John Bright)는 불과 70명이었던 야곱의

www.kci.go.kr

아들들과 그 가족들이 네 세대 만에 장정 60만의 큰 무리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정도의 숫자였다면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가 두려워 떨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한다. 더구나 당시 이스라엘 집단의 규모가 성서에서 말하듯 2명의 유대 산파가 감당할 규모였다면(「출애굽기」 1: 15-22) 많아도 2-3천 명을 넘지 못했을 것이라 말한다. 후대 이스라엘을 이룬 모든 선조들이 출애굽에 참여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인데, 실제로 「민수기」에 나오는 많은 목록들은 후대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본다(172-173). 즉, 한 사람에게서 유래한 가족집단이 한 번에 움직이며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성서이야기는 성서기자의 구성적 수사라는 이야기다.

성서학자들의 오랜 논쟁과 학문적 성과를 참조할 때, 초기 이스라엘을 구성한 사람들을 크게 두 다른 집단으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이집트 노예생활의 경험 속에서 출애굽을 경험한 뒤 가나안에서 이미 살고 있던 이스라엘 집단에 합류한 사람들이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들 역시 "중다한 잡족"이었다. 「출애굽기」 12: 38, 「민수기」 11: 4에 보면 "여러 족속과 섞여 사는 무리"라고 묘사되어 있다. 이들 중에는 상당수의 도망친 노예, 아피루나 이집트인들이 포함되었을 것(「레위기」 24: 10)이다. 여기에 모세의 장인과 아내 십보라의 민족인 미디안 족이 합세했다(「삼상」 15: 6). 갈렙, 옷니엘은 그나스 족으로 보고된다(브라이트 174). 요컨대 출애굽을 감행하고 광야여정을 통해 팔레스타인 산간지역으로 들어온 무리는 이미 구성상 "중다한 잡족"인 셈이다. 사실 셈족 노예들은 이집트 역사에서 기원전 2000년 경 이후부터 계속 발견된다. "전쟁이나 기근이 아시아를 덮치면 가나안 도시민들이 그 가족들을 이집트로 팔아서 곡물과 맞바꾸기도" 했으며, "기근 시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동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흔한 일"(할퍼른 131)이었다.

호피마이어(James Hoffmeier)에 따르면 아피루들은 '이집트 피톰과 람세스의 건설 현장에만 보내졌던 것이 아니라 전쟁 포로들이 담당했던

www.kci.go.kr

농사일까지 강요받았다. 신제국 당시 테베의 개인 묘지를 만드는 것이 일상생활이었던 외국인 노예들, 광야에서 새장에 갇힌 포로 상태로 포도 수확이나 포도 압착하기 또 석공 일인 벽돌 만드는 일을 하던 아피루들의 기록'이 있다(크라우스 311). 물론 광범위하게 존재하던 아피루의 존재가 곧 이스라엘 초기 공동체를 형성한 출애굽 집단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없으나, 분명 고대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노예 노동은 경제적 현실이었고 성서와 메르넵타 비문은 그들 중 얼마의 사람들이 기원전 13세기 경 이집트를 탈출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사회적 하층계급으로 떠돌면서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포도원, 밭, 건설 현장에서 일한 아피루들 중에 초기 이스라엘의 구성원이 되었던 출애굽 무리가 있었다고 명시한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 곧 이들의 실재를 부정하는 근거일 수는 없다. 크라우스의 말마따나 "고고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했다."는 것이 곧 "역사적 실재성을 부정하는 것"일 수 없기 때문이다(312). 사실 성경전승들은 세부적인 이집트 19왕조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묘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람세스 2세 당시에 갑자기 강제 노역이 많아진 것이나, 벽돌 제조에 가나안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지푸라기를 사용한다든가(할퍼른 142) 하는 점들이다. 게다가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이스라엘이 만난 사람들의 이름들인 미디안, 아말렉, 에돔, 모압, 암몬 등은 당시에 존재했던 민족들이다(144). 이에 대해 상당히 엘리트였을 후대의 성서기자가 기원전 13세기 람세스 당시의 역사를 훤히 꿰고 있기에 교묘히 구성한 허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반대로 초기 이스라엘을 이룬 모든 구성원들이 한 가족에서 파생했으며 몽땅 이집트 노예생활을 경험하다가 모두 한꺼번에 탈출해서 극적 정복전쟁을 거쳐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정치적 의도가 보이는 언급이라고 생각된다.

이스라엘로 편입되는 두 번째 주요 집단은 팔레스타인의 도시국가들 체제 내에서 억압받던 고용노예들이나 거주농민들로 추정된다. 당시 가

www.kci.go.kr

나안의 정치체제는 도시국가(city-state)의 형태였는데 소수의 지배계급이 이집트와 자신의 왕국을 위한 징세, 도시 군주들 간의 싸움으로 인한 징집 등을 거주자들에게 부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도한 징세나 노역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내부적 움직임' 속에서 이스라엘의 일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공동체 형성 이후에도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는 가나안적인 생활방식의 문제를 잘 설명해 준다. "기존 사회에서 소외되었거나 사회 안에 통합되지 못하여 변두리에서 생존하고 있었던" 그래서 아주 쉽게 해적이나 산적이 되었던 "노예들, 혹사당하는 농노들, 그리고 급료가 형편없었던 용병들"이 바로 이 내부로부터 '나온'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저항은 때론 힘을 얻었었고 세겜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영토를 확보했던 시절도 있었다.[9]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아피루에 대한 언급들은 팔레스타인 도시군주들이 두려움에 떨며 이집트 바로에게 도움을 구하거나 아피루 용병의 힘을 비는 상대방을 서로 비난하는 문서들이라는 해석이다(브라이트 179). 이러한 추론은 최근 고고학적 증거들이 보여주는 것들과도 상당히 일치한다. 고고학자들은 가나안의 도시국가 틈새를 떠돌며 일시적으로 정착하고 밀려나가고 하며 방랑하던 셈족 계열의 무리, 이스라엘의 선조라 불릴만한 이들이 이미 이 지역에 정착하고 있었던 흔적들을 발견하였다.

그럼 일찌감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다는 이 두 번째 집단은 언제부터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을까? 족장들에 대한 모든 관계와 결합들이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여전히 역사적 재현은 어려운 과제이다(포오러

9) 세겜은 가나안 아모리족의 도시였다(창세기 34장) 기원전 14세기 아피루의 추장 랍아유(Lab'ayu)가 세겜을 장악하고 자기 아들들 및 동맹자들과 함께 지중해 해안으로부터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에스들렐론 평야로부터 남으로 예루살렘 영토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다스렸음을 기록한 문서가 있다(브라이트 176). 세겜은 성서에서 이스라엘 지파동맹의 중심지로 묘사되는데, 브라이트의 가설에 따르면 "세겜에 정착한 아피루 족속들이 그들과 동맹을 맺었을지도 모르는 가나안 사람들(아모리족)과 함께 이스라엘에 협력하고 그 체제 안에 흡수되었을 것"이라 한다(176).

www.kci.go.kr

32). 그러나 기원전 19세기에서 13세기에 이르는 고대 근동의 문서들은 비교적 평화로운 방법으로 상부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북부,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방랑하며 지내왔던 족장들의 흔적을 말해준다.[10]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기록된 우르, 즉 남부메소포타미아와의 직접적인 연관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기록은 없지만, 적어도 "중기 청동기 시대와 그 이전 상부 메소포타미아와 북부 시리아에는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유사한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브라이트 107) 이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주하였다는 것은 역사적 신빙성을 가진다고 본다. 성서에 묘사된 아브라함이나 야곱, 이삭의 생활상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상부메소포타미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도처의 공동관습과 동일하다.[11]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신명기 26: 5)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신앙고백에 들어와 있는 뿌리 깊은 전승이다(브라이트 122). "이스라엘의 선조들은 원래 상부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왔으며, 이 지역은 반유목민과 친밀한 혈연관계를 느끼고 있었다는 성경 전승의 사실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118). '아모리'란 '서부인'을 뜻하는 아카드어인데 이

10) 마리 문서를 보면 기원전 19-18세기에 번창했던 도시 하란 근처에는 아브라함의 조상들의 이름과 일치하는 지역 명칭이 있다. 세룩(스룩)-사루기, 데라흐(데라)-딜투라히 등 족장설화의 이름들은 기원전 2000년 경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 두 지역에서 통용되었던, 특히 아모리족 주민들의 이름과 완전히 일치한다(포오러 33). 또한 야곱은 상부 메소포타미아 샤가르 바자르(Chagar-bazar)에서 나온 기원전 18세기 문서에 나오는 이름(Ya'qub-el)이며, 힉소스족 추장이름으로도(Ya'qup-al), 그리고 기원전 15세기 투트모세 3세의 목록에 언급된 팔레스타인 지명으로도 나온다. 아브라함의 원 이름이었던 '아브람(Abram)'은 바빌로니아 제1왕조의 문서에 나오며, 저주 문서에도. 마리 문서에도 동일한 철자를 포함한 이름들이 있다. 야곱의 아들들중 베냐민은 마리 문서에서 큰 부족동맹의 이름으로 나오고, 스블론은 저주 문서에, 갓, 이스마엘, 레위도 마리 문서에서 발견되었고, 아셀이나 잇사갈 등의 이름들 역시 기원전 18세기 이집트 문헌에서 발견되었다(브라이트 106).

11) 예를 들어 누지 문서에는 자식 없는 부부의 경우 종을 양자로 들여 유산상속을 한다든가, 무자인 아내의 경우 자신을 대신할 첩을 얻어줄 의무가 있다든가, 그 외에 라반과 야곱의 계약조건 등이 누지 문서에 나온 관습과 문화를 반영한다(브라이트 108).

www.kci.go.kr

는 '족장 시대와 그 이전부터 상부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의 다양한 서북 셈족들을 가리키는 명칭이었고, 그 중에는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123). 그러니까 상당히 간략화할 경우, 이스라엘은 고대 근동 바빌로니아 상부부터 팔레스타인에 이르는 지역을 천 여 년 넘게 방랑하며 주변부를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가나안 지역의 체제에서 종살이나 부당한 사회적 처우를 피하여 중부 산간지대로 '나간' 사람들과, 이집트 제국의 강제노역에서 탈출하여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온 이들이 만나 이룬 혼종집단인 셈이다.

물론 성서학자들 중에서는 왕국시대 이전의 이스라엘에 대해 한 공동체로서의 역사성을 상당히 회의하는 학자들도 있다. 소긴(J. A. Soggin), 밀러(J. M. Miller), 헤이즈(J. V. H. Hayes), 시터즈(J. Van Seters), 톰슨(T. L. Thompson) 등이 이에 속한다(카이저 16). 지파들의 연합에 대해서도 후대의 각색이 너무나 많이 개입되어 개별 에피소드를 통해 실제 있었을 법한 역사적 사건들을 재현해 보는 일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기원전 13-11세기에 걸친 이들의 흔적에 대한 고고학적 발견들은 「사사기」에서 묘사된 이 '중다한 잡족' 간의 공동체적 삶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못하게 한다. 사사기의 설화들은 대략 세겜과 벧엘 사이에 있는 중부 구릉지대를 기반한 에브라임 지파(tribe)를 중심으로 이들과 연대하였던 다른 지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들의 연대방식에서 공동체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소사사들(shôphēt, judges)은 대부분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다(밀러와 헤이스 105). 이러한 성서적 묘사와 고고학적 발견을 대조하여 볼 때 "중부 구릉지대의 북쪽 지역에는 에브라임의 지배를 받는 다소 느슨하게 결합된 일군의 지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파들의 이러한 느슨한 연합이 아마도 메르넵타 비문에서 말하고 있는 왕정 시대 이전의 이스라엘이었을 것"(105)이다.[12)]

문제는 기원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일종의 연대감을 가

www.kci.go.kr

지고 공동체를 형성하였다는 사실이다. 물론 정치적 호기가 작용했었다. 기원전 1200년부터 이집트의 새 왕국이 몰락하게 되었고 수 백 년 간 팔레스타인을 휩쓸던 이집트 세력이 사라지고 가나안과 시리아 땅에 권력 공백기가 생겼었다. 또한 이 시기 즈음에 팔레스타인의 요새화된 청동기 성읍들 상당수가 이미 파괴당한 상태였다(밀러와 헤이스 89). 이 정치적 과도기에 이스라엘이 단합하고 세력을 모아 특수한 정치적 공동체를 건설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군네벡 13). 그러나 이들의 민족사적 신앙고백이요 기록인 성서에 따르면 "중다한 잡족"간 연대의 보다 근본적인 힘은, 정치적 호기보다는 '낯선 땅에서 이방인이었던 공동의 경험'과 '약자들의 하나님 야훼에 대한 공동의 신앙고백'에 있었다.

4. 중다한 잡족의 '연대방식', 대안적 신앙고백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법률

결국 요약하면, 팔레스타인 내부에서의 여타 사회적 소외계층의 '밖으로의 움직임'이 출애굽을 경험하며 야훼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과 만나면서 발생한 일종의 연대가 기원전 13세기 전반부 이스라엘을 탄생시켰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들이 어디에서 왔건 이들은 정교하게 고안된 족보들을 통하여 자신들과 주변의 타인들 사이에 민족적 경계를 지음으로써 비로소 하나의 민족이 되었던" 사람들이다(맥카터 177). 그리고

12) 에브라임 지파와 긴밀하게 연대한 것으로 기록된 세 지파들, 즉 베냐민, 므낫세, 길르앗이 있고 그밖에 갈릴리와 이스르엘 계곡에 자리 잡은 아셀, 스블론, 잇사갈, 납달리 등이 이스라엘의 부족으로 묘사된다. 잇사갈이라는 명칭이 skr에서 파생된 "품꾼"을 뜻한다면(「창세기」 49:14-15의 지파예언과 비교), "잇사갈 씨족들은 비옥한 이스르엘 계곡에서 비이스라엘 계열의 종족들 가운데 살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노동자들로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밀러와 헤이스 107). 단, 르우벤과 갓 지파의 영토는 확정하기가 어려운데, "그들이 자기 가축떼들을 이끌고 광범위하게 흩어져 살았기 때문이다"(108).

www.kci.go.kr

이 '경계지음'의 중심에 야훼(여호와) 신앙이 있었다. 야훼신앙이 과연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그리고 이들이 공동체적 삶을 살기 시작하는 기원전 13세기경에 과연 이 야훼신앙이 이스라엘인들 사이에서 배타적으로, 광범위하게 확립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이다. 지면상 상세서술은 생략하겠으나 요점은 야훼신앙의 주요한 기원지로 고백되는 '시내산 전승'이, 왕정 이후 왕궁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시온산 전승'으로 대체하려는 지도층의 지난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서 안에 살아남았다는 사실이다. 성서의 고대전승들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구두전승임을 상기할 때, 이를 경험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에 의해 전해져온 진정성, 그리고 이 전승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미친 영향력을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다.

「여호수아」 24장에는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모든 부족들(tribes)이 야훼신앙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적 삶을 살아가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온다.

>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

www.kci.go.kr

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24:14절-18절).

많은 성서학자들은 세겜에서의 이 계약이 출애굽 무리가 팔레스타인에 들어온 초기 형태가 아니라 열두 부족으로 상징된 이스라엘의 "중다한 잡족들"이 하나로 연대하게 되는 최종적 형태를 묘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최종적 형태가 언제 갖추어졌는가에 대해서는 후대로 미룰 수 있는 대로 미루거나 이들의 공동체적 삶 자체를 회의할 수 있는 대로 회의하려는 동향도 있다. 그러나 문서비평 등을 통해 밝혀진 오경의 고대 전승들은 이 다양한 무리들이 그 시작부터 하나의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연대감을 기대했으며 그 기대의 한 중심에 야훼(여호와) 신앙이 있음을 전하고 있다.[13]

야훼는 어떤 신으로 고백되기에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연대감에 힘을 주는 구심점이 되었을까? 초기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배에 대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정보는 일관되게 야훼를 "전사"로 묘사한다는 점이다. "그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그의 적들을 무찌르기 위해 나아간다"(맥카터 175). 이스라엘 조상들의 사회적 경험이 '아피루'나 '에베르'로 대변되는바 뿌리 들린 이주자들의 고단한 삶, 도시국가체제의 변방에서 혹은 그 체제 내의 억압적 집단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던 생활이었다면, 이들을 위해 이들의 편이 되어 억압의 원천인 도시국가적 문명(가나안 문명으로 대변되는)을 부수기 위해 싸우는 '전쟁신' 야훼는 분명 매력적인 신이다. 물론 이 호전적인 신에 대한 신앙고백이 유대교와 이후 기독교로 이어지면서 맥락을 잃고 그들의 사회적 위치가 어떠하든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13) 오경의 법률 자료들 중 상당량이 이스라엘의 초창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오늘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초기 히브리 운문들, 즉 미리암의 노래(「출」 15:1-18), 드보라의 노래(「사사기」 5장), 발람의 신탁(「민」 23장; 24장), 모세의 축복(「신」 33장), 모세의 노래(「신」 32장), 야곱의 축복(「창」 49장), 하박국 시편의 일부(「합」 3장), 「시편」 29편, 68편 등은 기원전 12-10세기 사이의 이스라엘 신앙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해주는 자료들이라 한다(브라이트 190).

www.kci.go.kr

위한 전투를 '성전(holy war)'이라 정당화한 역사의 근거가 된 사실은 미화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이스라엘 초기 공동체 당시 고대 근동의 보편적 신관, 즉 지도자들의 존재론적인 신적권위를 정당화하던 신관과 상당히 대조적인 이스라엘의 신앙고백이다. 이스라엘의 신 야훼는 억압자, 약자, 사회적 실패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고백된다. 야훼는 사회적 루저들의 신으로, 이들의 복리를 위해 싸우는 신으로 고백되고 신앙된다. 결국 한 공동체의 탄생, 즉 '우리'라는 의식과 삶의 방식의 채택이 '타자와의 경계짓기'에서 비롯된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탄생시킨 중심에는 야훼신앙을 기반으로 자신들이 '가나안인들과 같지 않다'는, '가나안인들의 생활방식이나 신앙방식과 다른 삶을 선택했다'는 선언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가나안과는 다른' 대안적(alternative) 공동체를 영위하려 하였으며 때문에 이들이 야훼로부터 받았다고 고백하는 법률 역시 지배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근동의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 그 강조점이 달랐다.

이들의 신앙과 생활방식의 기준이 되는 오경 법전이 현재 상태로 완성된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기원전 5세기)라 하여도 그 원자료들은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의 출발부터 공유하던 신앙체계였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이들의 법전에서 가장 뚜렷한 메시지는 사회적 약자를 향한 야훼의 관심이다. 「신명기」 법전은 '노예 자신이 원한다면 자국인과 함께 계속 머물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6년 후에는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법령으로 시작한다. 여자노예의 노역과 해방에 관한 조건이 뒤를 잇고 있으며 과부와 고아를 괴롭히지 말아야 하고, 가난한 자에게 빌려준 돈에 이자를 붙여서는 안 되며, 악한 목적으로 악인과 공모하는 것은 저주를 받으며, 뇌물을 받는 것과 가난한 자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도 똑같이 가증스러운 짓이라는 야훼의 경고가 뒤따른다. 경작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삭 주울 기회를 주기 위해 매 7년마다 휴작해야 하고, 고아와 과부들의 생계를 위해서 추수 밭에 이삭들을 남겨두고, 포도밭과 올리브 밭에는 얼마 정도

www.kci.go.kr

의 열매를 남겨 두도록 하며, 히브리인이든 외국인이든 모든 종들에게는 친절을 베풀어야 하고, 또 그들은 지체 없이 자기 품삯을 지불받도록 되어 있다. 히브리 노예들은 7년이 지나면 해방되어야 하며 또 그들은 양과 곡식과 포도주를 후하게 받아야 한다. 도망한 노예들까지도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 줄 필요가 없으며 그들에게 은신처를 구해 준 사람들로부터 정당하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 윤리적·신적 명령으로서의 정의는 신명기 가르침의 기본요소이다. 재판관들과 관리들에게는 공평한 행동이 요구되고 있으며, 법정에서의 뇌물은 명백하게 금지되어 있다. 저울과 자는 공인된 표준에 일치되어야 하며, 이 점에서 부정직한 행동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야훼 앞에 가증스러운 존재가 된다. 신명기 저자는 온 백성이 야훼의 축복을 받고자 할 때 그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를 뚜렷하게 전한다'(화이틀리 125-127).

또 다른 율법서인 「레위기」에도 공의와 윤리가 강조되고 있다. '판결은 공정하게 내려져야 하고 빈자와 부자 사이에 어떤 차별도 두어서는 안 된다. 추수계절 동안에는 가난한 자와 여행자를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곡식밭의 변두리와 이삭들 및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들은 남겨 두어야 한다. 또 누구든지 자기 집안의 궁핍한 형제를 도와주어야 하고 결코 노동의 조건을 붙여 돕지는 말아야 한다. 재산의 매매는 정직하게 거래되어야 하며, 가난한 사람의 재산은 그보다 부유한 친족들이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다'(화이틀리 127). 도둑질과 거짓말과 부당한 거래와 야훼의 이름으로 거짓맹세하는 것 등도 모두 한결같이 비난받고 있다. 벙어리와 소경을 존중해야 하고, 연로자와 허약자도 존경해야 한다. 사람이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신명기」 저자는 야훼의 관심을 분명하게 밝힌다.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12: 28).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중심이 되는 이 신률들이

www.kci.go.kr

초기이스라엘인들의 공동의 경험과 열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스라엘이 당시 고대근동의 왕정을 중심으로 한 도시국가체제를 증오했던 이유나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와 같지 않게 운영하면서 대안적 삶을 200여 년 동안 지속했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사사기」가 묘사하는바 이스라엘의 지파체제는 매우 느슨하였으며 국가기구가 갖추어지지 않았었다. 중앙 정부도 없고, 도성이나 행정기구, 관료제도, 상비군도 없는 사회였다. 위기가 왔을 경우, 여호와의 영(the Spirit of Yahweh)에 의해 능력을 입은 대사사가 '임시로' 등장하여 지파들을 소집해서 적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공동체적 안전을 도모하였다고 성서는 전한다. 이들에게 '왕정'이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거부되었다. 메소포타미아나 시리아, 가나안, 그리고 이집트의 왕정사회 주변과 틈새를 살아오면서 이들이 숱하게 보아온 것은 형상화된 신들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지배권을 정당화하고 신격화하는 소수 지배계층의 횡포였다. 이를 기억할 때, 이스라엘의 신앙고백의 핵심에 왕정을 향한 강력한 거부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설득력을 가진다.

이스라엘의 신 야훼의 신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 야훼를 눈에 보이게 나타내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지금까지의 고고학적 발굴에서 여호와의 성상이 단 하나도 발굴되지 않았다 것에서도 이것이 오래고 강한 전통임을 말해준다. 당시 고대근동의 어떤 신들과도 달리 야훼는 자연력과도 동일시되지 않고, 하늘이나 지상의 어떤 지점에도 국한되지 않았다(브라이트 206-207). 필자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신 이해가 '신과 인간 사이의 극단적인 존재론적 불연속성'(radical ontological discontinuity of being between the Yahweh and humans)을 나타낸다고 보는데, 이런 초월적 신 이해의 완성은 후기라 해도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야훼의 초월성에 대한 인식이 존재했다고 본다.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로 둔갑하고, 메소포타미아나 가나안 도시국가의 왕이 작은 신들로 고백되는 '신과 인간 사이의 존재론

www.kci.go.kr

적 연속성'을 담은 고대 근동의 신화들이 사회적으로 적용된 결과는, 신들의 종으로 여겨지는 다수의 백성들에게 군림하기 위한 지배이데올로기가 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장 극심한,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억압을 받았던 "중다한 잡족"들이 사회정치적 호기를 맞아 하나의 대안적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그들 연대의 핵심이 되는 신앙고백에 있어 '인간이 왕이 되는 가능성' 더 나아가 '인간이 신이 되는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함은 핵심적인 관심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야훼의 영'이 지정한 불특정 개인, 그것도 그 영이 그에게 임재하는 동안만 '임시적으로' 공동체에서의 지도력을 인정해주는 독특한 방식으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였던 것이다. 이후 블레셋의 침공과 여러 정세들의 변화가 이러한 삶의 방식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정의 출현을 낳았을 때에도 성서기자들의 신앙고백 속에 담긴 왕들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이들이 야훼의 법도에 얼마나 근접하였는가가 기준이 되었다. 여기서 사회적 약자집단인 이들의 열망이 야훼종교를 탄생시켰는지, 아니면 반대로 야훼의 개입으로 인한 극적 구원 역사와 신앙이 이 "중다한 잡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었는지 그 선후를 논하는 것은 사회윤리학자의 역량을 넘어서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사회윤리학자로서 필자가 관심하는 바는 이들이 한 공동체로서 '새로운 경계짓기'를 가능케 한 종교사회적 담론의 힘이다. 즉 사회적 약자로서의 공통의 경험과 그 경험이 낳은 종교담론으로서의 야훼신앙, 그리고 그 담론이 가져온 대안적 공동체의 성격과 실천 말이다.

5. '이스라엘'은 21세기 전지구적 이주노동자들의 연대를 위한 원형이 될 수 있는가?

휘틀럼(Keith Whitelam) 같은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고유성을 회의하

www.kci.go.kr

는 중이다. 특히 팔레스타인에 그들만의 역사를 재건하려는 과도한 열망이 정작 그 땅에서 오랜 기간 역사를 가져왔던 팔레스타인인들의 실재를 박탈했다고 비난한다. 기존의 성서학과 성서고고학이 성서 내용을 입증하려는 방식으로 전개된 까닭에, 결국 성서를 편집하던 포로기 이후의 편집자들이나 현재 학자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발명'하려고 시도했다는 지적이다. 기존의 서구중심적 접근이 팔레스타인 땅을 '텅빈 공간'으로, 그곳 원주민들을 주변화하고 배제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 이스라엘의 독특한 역사적 현존에 의해 … 성서연구는 일종의 강탈행위에 연루된다. 그러한 행위는 시온주의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팔레스타인 거주자들을 몰아냄으로써 오늘날의 정치적 동반자를 얻은 셈이다. 역사 없는 민족, 또는 성서연구의 담론에 의해서 역사를 박탈당한 민족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게 되고, 아무 상관도 없게 되며, 결국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객관적인 학문연구로 제시되는 해석행위는 서양의 연구교육기관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현재에 대한 지배적인 이해, 즉 이스라엘이라는 근대국가가 '비어 있는' '불모의' 땅을 일구어 꽃을 피웠다는 오늘날의 지배적인 이해와 복잡하게 엮여 있다(휘틀럼 77).

적어도 현재의 이스라엘과 이들이 팔레스타인에게 대하는 태도를 보는 한 휘틀럼의 날카로운 비판은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경계지움'을 통해 한 민족 집단을 이루는 과정이 '고착화'를 지나오면서 지니게 되는 배타성을 말한다면 이는 그 어느 제국도 피해가지 못할 공통의 죄악이다. 필자가 여기서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현재적 정당화가 아니라, 중심권력 밖에 있던, 중앙의 틈새를 살아가던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다. 이 관심에서는 초기 이스라엘의 실재성만큼이나 포로기 이후 성서편집자들의 사회적 상상력도 중요한 몫을 한다. 그것이 공동체를 형성, 유지,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던

www.kci.go.kr

종교·사회적 담론으로서 역사 안에서 실제적 힘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다. 포로기 이후의 이스라엘은 오랜 식민지배 이후 겨우 옛 삶의 터전으로 돌아올 기회를 허락받은, 여전히 약자인 집단이었다. 자신들의 종교·사회적 담론을 만들어내던 당시의 이스라엘인들은 여전히 제국의 틈새에 끼어 사는 주변인이었다. 20세기 근대민족국가 형성에 얽힌 그들의 제국주의적 시도에 대해서는 그 모든 제국주의적 시도가 받아야하는 비난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어느 민족도 일상화와 제도화의 끝머리에서는 타락과 독선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해체를 선택해야할 일이다.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비난과, 그들의 처음 조상과 그 전승의 후계자들이 '외부로부터 내부를 만들어 낸 역사'에 대한 성찰은 분리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성서는 이스라엘의 처음이 '불모의 땅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되었다고 증거하지 않는다. 오히려 도시국가체제와 고대 제국주의의 틈새에서 시작되었다고 기록한다. 적어도 "구조적 권력관계를 전복하려면 이를 괴롭혀야"하는 것이 맞는 전략이라면(Young 416) 고대 근동 도시국가체제와 고대 제국주의체제의 틈새에서 이 구조를 괴롭히며 대조적인 삶의 방식과 종교담론을 창출하게 된 "중다한 잡족"들의 연대는 주목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더욱이 이 연대가 인종이나 혈연, 중앙집권적 권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방황하고' '남의 땅에서 종살이하던' 경험을 함께 겪은 이들의 '보편'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더 더욱 그러하다. 그 어느 이데올로기나 사상도 '보편성'의 이름을 배타적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 시대가 허락하는 '임시적 보편성'의 이름은 있다고 본다. 당대의 사회체제가 양산하는 주요한 구조적 문제의 이름으로서 말이다. 21세기 전지구적 이주사회에서 '임시적 보편성'의 이름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국제이주노동자'들의 뿌리 들린, 양쪽으로 이중배제된 경험이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혈연, 인종의 경계를 넘어 사회적 공동경험을 나눈 "중다한 잡족"들이 자신들의 연대를 가능케한 믿음체계와 법률을 담론화하고 삶속

www.kci.go.kr

에 제도화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전략적 교훈은 여전히 가치롭다고 본다. 혼종성 혹은 잡종성 자체는 "전유의 대상이지 그 자체가 전복적이고 저항적인 가치로 평가될 수 없다"한 김용규의 말에 동의한다(178). 이주노동자들의 증가로 점차 혼종적 사회구성체가 형성되는 여러 지역집단 중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닌 현실이다. 이들의 혼종성 자체는 전복적이지도 저항적이지도 않다. 이 땅에서 "중다한 잡족"이 연대할 사회적 가치, 윤리적 담론의 창출과 제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들의 담론은 거주지의 정체성과 체제에 동화되거나 흡수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혼종적 상황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집단정체성이어야 한다. 수 천 년 전 "중다한 잡족" 이스라엘의 집단정체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참고문헌

게오르그 포오러. 『이스라엘 역사』. 방석종 옮김. 서울: 성광문화사, 1982.

김연수. 「접두어 'trans'의 의미와 '탈경계 인문학(Trans-Humanities)' 연구에 관한 소고」. 『탈경계인문학』3.3.7 (2010): 29-61.

김용규. 「문화 연구의 전환과 잡종 문화론」. 『영미문학』5.2 (2005. 12): 155-188.

노만 갓월드. 「데버 교수의 비판에 대한 응답」. 허셀 샌크스, 바룩 할퍼른, 윌리엄 데버, 카일 맥카터 강연. 『고대 이스라엘의 기원』. 강승일 옮김. 한국신학연구소, 2008. 102-108.

_____. 「초기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사회-경제 체제」. D. N. 프리드맨·D. F. 그라푸 편. 『전환기의 팔레스틴 고대 이스라엘의 출현』. 이순태 옮김. 한국신학연구소, 1995. 61-85.

C. F. 화이틀리. 『고대 이스라엘 종교의 독창성』. 안성림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1980.

롤프 크라우스. 『모세는 파라오였다』. 김영, 신미경 옮김. 서울: 이룸 출판사, 2003.

마빈 체이니. 『농경사회 시각으로 바라본 성서 이스라엘 구약성서의 종교와 사회의

www.kci.go.kr

역사・문학 해석』. 우택주 외 역. 서울: 한들출판사, 2007.
맥스웰 밀러, 존 헤이스. 『고대 이스라엘 역사』. 박문재 옮김. 서울: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2004.
바룩 할퍼른. 「출애굽, 사실인가 신화인가?」. 허셀 생크스, 바룩 할퍼른, 윌리엄 데버, 카일맥카터 강연. 『고대 이스라엘의 기원』. 강승일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8. 125-159.
안토니우스 군네벡. 『이스라엘 역사』. 문희석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월터 부르그만. 『구약신학』. 류호준, 류호영 옮김. 서울: CLC, 2003.
월터 카이저. 『이스라엘의 역사』. 류근상 옮김. 고양: 크리스챤 출판사, 2003.
윌리엄 데버. 「이스라엘인과 가나안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허셀 생크스, 바룩 할퍼른, 윌리엄 데버, 카일 맥카터 강연. 『고대 이스라엘의 기원』. 강승일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8. 49-94.
존 브라이트. 『이스라엘의 역사』. 엄성옥 옮김. 서울: 은성, 2000.
존 M. 할리건. 「아마르나 시대의 농민의 역할」. 『전환기의 팔레스틴 고대 이스라엘의 출현』. D. N. 프리드맨, D. F. 그라프 엮음. 이순태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40-60.
G. E. 맨덴홀. 「고대 이스라엘의 전환기 역사」. 『전환기의 팔레스틴 고대 이스라엘의 출현』. D. N. 프리드맨, D. F. 그라프 엮음. 이순태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5. 189-213.
카일 맥카터. 「이스라엘 종교의 기원」. 허셀 생크스, 바룩 할퍼른, 윌리엄 데버, 카일 맥카 터 강연. 『고대 이스라엘의 기원』. 강승일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8. 163-192.
키스 휘틀럼. 『고대 이스라엘의 발명. 침묵당한 팔레스타인 역사』. 김문호 옮김. 서울: 이산, 2003.
허셀 생크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들」. 바룩 할퍼른, 윌리엄 데버, 카일 맥카터 강연. 『고대 이스라엘의 기원』. 강승일 옮김.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8. 11-46.
Young, Robert. *Post Colonialism: An Historical Introduction.* London: Blackwell, 2001.

www.kci.go.kr

ABSTRACT

A Societal Imagination of "Mixed Tribes"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21st-Century Global Immigrants

Baik, Soyou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is an assessment of the origin of the Israelites and the salient characteristics of their community life in the time of the judges, starting from the 13th century B.C.E. until the period right before the emergence of the Jewish monarchy in 1000 B.C.E. Entering the Canaanite region from diverse areas such as Upper Mesopotamia, Syria, and Egypt, the first ancestors of the Israel were composed of mixed tribes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in terms of blood or ethnicity. Nevertheless, their shared common experiences of being outlaws(Apiru) who left their hometowns for a living and became low-paid workers, contract slaves, or hired soldiers in the systems of the Canaanite city-states and Egyptian empire, brought them to form a group identity and to be united under the name of 'the Hebrew.' With an interest in social dynamics and the strategic powers of religious discourses that the internationally wandering hybrid immigrants had generated, this study concerns our contemporary phenomenon of global immigrant workers, who are uprooted from their homelands and also alienated in their residential countries. Distinct from the current imperialistic and exclusivist behavior of the modern

www.kci.go.kr

nation-state Israel, this article examines the possibility that the religious-societal imagination of the Israelites offers a powerful discourse to create a new sense of group identity while transcending ethnicity and national boundaries. Recognizing the internationally mixed immigrant workers as one of the increasing groups in this 21st-century global world, this work requests an urgent task of creating ethical and legal discourses that would bring legitimacy and new identity for the uprooted people who now share the common residential spaces and experiences of living in unfamiliar lands.

주제어: 히브리인(Hebrew), 아피루(Apiru), 탈경계(Trans-Boundary), 혼종성의 담론과 전략(Hybridity Discourses and Strategies), 집단정체성(Communal Identity)

논문제출일: 2011. 04. 05
심사완료일: 2011. 05. 10
게재확정일: 2011. 05. 10

www.kci.go.kr